

총선 여론조사 부작용 속출

예비후보 '꼼수 경력' 조사 파행
무차별 문자 메시지 유권자 짜증
널뛰기 조사결과에 신뢰도 추락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수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꼼수'를 부리는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력 문제로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와 예비후보 홍보전화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관에 따라 일부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이 널뛰기를 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신년을 맞아 지역 언론들이 내년 총선 여론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직함이나 경력 사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시 경력 표기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일부 후보들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이용해 '꼼수'를 쓰고 있어서이다.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때 대표적인 경력 2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들이 '이재명' 당 대표 이름을 넣은 경력 1개만을 등록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을 표현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해야 하도록 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 경력 1개만을 선관위에 등록할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대체할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 한 방송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던 내년 총선 광주 광산갑 후보 선호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후보가 '이재명' 당 대표 이름이 들어간 경력 1개만이 등록돼 상대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이 같은 법과 규정 사이의 맹점을 파악한 다른 후보들도 잇달아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간 대표 경력 1개로 선관위에 등록을 변경하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광산갑에 이어 동남갑과 서구갑, 북구를 등에서 후보들이 '이재명', '김대중' 등을 사용한 대표 경력 1개로 바꿨다.

이 가운데 일부 후보는 여론조사를 계획중인 언론사에 공문까지 보내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때 제



광주 총장로 성탄절 인파
강추위가 잠시 물러난 25일 오후, 성탄절을 맞아 광주시 동구 총장로를 찾은 수 많은 시민들이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의 대표 경력에 따라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출한 대표 경력 사용 요청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으름장마저 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경선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배경에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 사용 여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면서 "하지만,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악용해 일부 후보들이 특정 정치인 이름이 들어간 대표 경력을 사용할 경우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와 전화 홍보 공해도 문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언론사 여론조사 시기를 미리 알고 유권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이다. 하루에 많게는 1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유권자들이 문자메시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시기에 맞춰 예비후보 홍보 전화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여론조사기관마다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조사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질문 문항이나 후보들

의 공정성, 후보자 별 주요 경력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내년부터 보험 가입 때 유사한 기존계약 있는지 안내

내년부터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다른 보험사에 들어놓은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지 여부를 비교해 안내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하고, 앞으로 신계약 청약 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의 정보를 확인해 비교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비슷한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유사 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소비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하거나, 기존 보험 중도 소멸에 따라 계약자가 손실

을 보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 등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은 신용정보원의 전용회선 신설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들 협회는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내년 아동급식단가
8천 원→9천 원으로 인상
1만6000여명에 식사 제공

광주시는 "내년 아동 급식비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1만 6000명이며 2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아동이나 교사·사회복지사·통장단 등을 통해 발급한 아동용 자치구 급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일반음식점·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급식카드 가맹점 1만 6400여 곳을 직접 이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1900여곳이었던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급식카드 문양도 일반 신용카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가맹점 위치와 잔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지난 18일부터는 겨울방학 급식 지원을 시작했다. 방학 기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과 교사·아웃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급식 제공 업체의 위생과 급식 질 등을 수시 점검한다.

임애순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세수 감소로 초긴축 재정 상황인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단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활활한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지시설 겨울나기, 간식비·난방비 줄인다 ▶6면

굿모닝 예향 - 4세대 걸그룹 화려한 비상 ▶18·19면



광주시 페퍼스 '반전이 필요해'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K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